



예술 조각보 'LED 조명' 품다



리빙 & 아트

섬유공예

색색이 고운 옷을 입고 바람에 하늘거리는 청사동, 아이들 복돈 대신 캔들 LED를 품고 빛을 밝히는 귀주머니등, 창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햇살을 살포시 감싸 안고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주는 창가리개... 조각난 천을 꿰고 이어 사용하던 조각보가 생활속 공예품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섬유공예가 우영희(59)씨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 '수려재'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등이 많이 걸려 있다. 조각보 기법을 이용한 조명등은 삼베, 모시, 명주 등 우리 전통섬유를 이용해 새로운 디자인상품을 창조해 내는 우씨의 대표 작품이다.

"조각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규방 문화중 하나예요. 쓰다 남은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 만든 생활의 지혜였지요. 지금은 단순히 물건을 싸는데 사용하는 도구에서 벗어나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씨는 물건을 싸거나 인테리어로 걸어두던 조각보의 한정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다양한 공예품에 접목시키는데 주력했다. 조명등이나 스카프, 가방 등 액세서리 명품에서부터 커튼, 대형 창가리개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각을 살짝 바꿨을 뿐이다. 전통이지만,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는 전통이 아닌, 생활 공예품으로 변신한 전통이었다. 그 시작이 명주천을 활용한 조명등이었고 다양한 부재료와 여러 디자인이 더해져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조각보 LED 조명등으로 발전했다.

정식 명칭은 'LED캔들 조각보 조명등'이다. 촛불 대신 LED(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해 빛을 내도록 했다. 풍경처럼 줄을 매달아 천정에 달아두거나 청사초롱처럼 네모틀을 만들어 바닥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다. 색동



섬유공예가 우영희씨가 예술의거리 '수려재' 공방에서 조각보 조명등에 쓰일 옥사천을 자르고 있다.

복주머니처럼 귀주머니등을 만들어 소품으로 사용하거나 향아리 모양의 조명등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비로움이 더해진다.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얇은 천조각이 흐물거림 없이 정확한 틀을 갖추고 있다. 여러색의 천을 짜집기 했지만 조각 조각들의 모습이 깔끔하다. 그림을 그려넣은 것도 있고 프린팅을 한 것도 있다. 더 신기한 건 손으로 꾸깃꾸깃 문질렀다가 놓아도 금세 제모습을 찾아간다는 점이다.

예술의 거리 '수려재' 우영희씨 조명등에 전통 입혀 예술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도 전시



무엇을 들고 있는지도 잊어버릴만큼 가볍기까지 하다. 전통공예와 디자인의 환상조합이다.

우씨의 조각보 조명등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15~11.13)에도 전시되고 있다. 세 개의 부스에서 각각 다른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조각보 조명등 개수만 25개나 된다. 조명등 외에 조각보를 이용한 김치 포장 디자인과 스카프 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어떤 작업이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조각보만 보더라도 전통공예가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도, 생활속 공예품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정형화된 전통기법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담긴 나의 작품을 만드는게 더 좋은 겁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전통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대학에서 섬유공예를 전공했던 우씨는 전통공예인 매듭을 배우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시립미술학교를 다니며 다색판화를 전공하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섬유공예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배웠던 작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방을 차리고 10여년이 흐르다 보니 섬유공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는 우씨는 "앞으로도 전통섬유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머니 그리며 새가 되어 '훨훨 날다'

정선 개인전 28일까지 자미갤러리

통 한방병원 갤러리전 11월 27일까지

서양화가 정선 작가의 개인전이 '훨훨 날다'를 주제로 28일까지 자미갤러리와 11월 27일까지 통 한방병원 갤러리에서 동시에 열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어머니를 소재로 아크릴과 다크종이를 이용한 회화 작품 23점을 출품한다. 어머니에게 선사하는 '사랑합니다' 시리즈와 '훨훨 날다'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다크종이 작품 '사랑합니다'는 석고로 틀을 만들고 나무, 비, 산 등 자연의 이미지를 조각한 후 다크종이를 덧발랐다. 다크종이의 거친 표면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어머니를 향한 정 작가의 애절한 마음을 담았다.

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한 '훨훨 날다'는 작품 속 한마리 새가 돼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바람이 서려있다.

작가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오방색 물감을 20번 이상 덧칠하며 어머니를 향한 애뜻함을 표현했다.

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개인전 14회, 단체전 350회에 참가했으며 순



'훨훨 날다'

천 도술갤러리, 광주 통 한방병원 전시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0-83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노란 은행잎 노오란 가을

'가을풍경'

전병문 개인전 '10월의 수채화' ... 31일까지 갤러리아크

전병문 작가가 오는 31일까지 갤러리아크에서 '10월의 수채화'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수채화를 전문으로 하는 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가을을 소재로한 작품 16점을 출품했다. 노란 단풍잎이 화폭을 가득 메운 '가을풍경'은 우두커니 자리잡고 있는 단풍나무를 통해 가을 정취를 듬뿍 살리고 있다. 단풍잎과 맞닿아 있는 하늘은 수채화의 특성인 색이 번지는 효과를 사용해 몽환적이면서도 여백의미를 보여준다.

전씨의 작품은 일상에서 흔히 보고 지나치는 풍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되돌아보고 있다. 밝은 원색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마음의 여유가 느껴진다. 전씨는 개인전 4회를 열었고 약 20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한국미협,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예술사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71-12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차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